



한국경제학회 2015년도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3:3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경제학회, 자유와창의교육원

■ 후 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한국경제학회 2015년도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3:3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경제학회, 자유와창의교육원

■ 후 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초청의 말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범국민적으로 난국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경제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경제난국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교육입니다. 동일한 기초여건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건 속에서 어떠한 경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행위를 하느냐가 성과를 아주 다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학계, 정부, 업계 등이 합심해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은 경제교육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교육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도 부족하고 경제교육의 내용도 질도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괴리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점증하는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한국경제학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 지 순
자유와창의교육원 원장 송 병 락

프로그래م

등 록 (13:30~14:00)

개 회 식 전체 진행 사회: 조성진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14:00~14:20)

- 개회사 이지순 (한국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환영사 송병락 (자유와창의교육원 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축 사 김준경 (KDI 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Session I : 주제 발표 (14:20~15:50)

시 간	세 부 일 정
<주제발표> 14:2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1 : 정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제언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실장)• 발제 2 : 대학 경제학과 커리큘럼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의 현실 이 영 (한양대 교수)• 발제 3 : 경제: 어떻게 가르칠까? 손정식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Coffee Break (15:50~16:00)

Session II : 패널토론 (16:00~17:00)

<패널토론> 16: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회 :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토 론 : 김경준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김나영 (양정중 교사) 김동준 (기재부 경제교육홍보팀 과장) 김진영 (건국대 교수) 김진영 (고려대 교수)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p>(가나다 순)</p>
-----------------------	---

폐 회 (17:00)

목 차

발 표 1 : 정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제언	1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실장)	
발 표 2 : 대학 경제학과 커리큘럼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의 현실	55
이 영 (한양대 교수)	
발 표 3 : 경제: 어떻게 가르칠까?.....	71
손정식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발표 1]

정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제언

2015. 10. 21

심 재 학
(KDI 경제정보센터 실장)

정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제언

2015. 10. 21

심 재 학
KDI 경제정보센터

※ 이 보고서는 기재부로부터 의뢰받아 KDI(심재학 외)가 수행한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과 향후 추진 전략’ (2015.5)의 내용을 기재부의 동의하에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 경제교육 현황	8
1. 시대별 경제교육 추진 현황	8
2. 경제교육 추진체계	10
3.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 및 공급 현황	14
III. 해외 경제교육 현황	27
1. 미국	27
2. 영국	29
3. 일본	30
4. 세계 경제교육 흐름	32
IV.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추진 방안	34
1.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필요성	34
2.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의 특징	35
3. 경제교육 적기 활용	36
4.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 개발	36
5.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	38
6. 정부 주도의 최우선 추진 전략	41
V. 경제교육 평가 및 국민여론	42
1. 우리나라 경제교육 평가	42
2. 경제교육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43

VI. 결론 및 정책 제언	47
1.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지속 필요	47
3.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강화 방안	48

I. 서 론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은 과거에 비해 변화가 급속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져 통합 혹은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시행해 왔음.
-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만 의존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경제교육은 잠재적 경제교육 수요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경제교육 수요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대부분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대부분의 경제교육 전문기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제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중소 도시를 포함해 도서·소외 지역이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재의 경제교육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교육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교육 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국민 경제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의 잠재적 수요는 물론 공급자인 정부와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추진 실적과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경제교육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정부의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공공부문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II. 우리나라 경제교육 현황

1. 시대별 경제교육 추진 현황¹⁾

가. 1980년대 : 정부주도 대국민 경제교육 추진

-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한국경제는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함.
 - 경제기획원이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시책은 개발연대에 파생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추곡수매가 동결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인기가 없는 정책임. 이에 정부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1980년 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제교육을 추진하였음.
- 1981년 2월 경제기획원 내에 '대국민 경제홍보기획단'을 발족시켜 국가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 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형태의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음.
 - 대국민경제홍보기획단은 1982년 경제교육기획관으로 정식 조직화됨.
 - 1980년대 중반에는 경제기획원 내 경제교육관실이 신설되었고, 1984년 8월에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8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간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됨.
 - 1989년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기획관을 경제교육기획국으로 개편하여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

1) 박용성, 김진영, 「경제교육 주관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2.

- 경제교육기획국은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1994년에 과단위로 축소됨.

나. 1990년대 :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경제교육 분담

- 1990년대에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참여가 확대되어 정부와 민간이 경제교육을 분담하는 상황이 되었음. 정부는 1989년에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설립(1991년에 KDI와 통합)하여 경제교육을 체계화시켜 나갔음.
 -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경제 교과서 편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업, 공무원·교사 경제연수 실시 등 실질적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주도로 1994년에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설립됨.
- 1994년에 재정경제부 내 경제교육홍보기획단이 설치하여 경제교육을 추진하였음. 이후 폐지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경제교육 강화차원에서 경제홍보기획단이 부활됨.

다. 2000년대 :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확대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3년)와 재정경제부 주도로 13개 민간기관이 참여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2004년)가 창설되면서 민간기관을 통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됨.
 - 2005년에는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산하에 경제교육홍보팀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의 참여 기관을 18개로 확대하면서 경제교육협의회로 개편함.
- 2009년 2월 정부는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
 -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지원하기로 하고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지정함.

-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후 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함.

라. 2010년 이후

- 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를 통해 경제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경제교육 실시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함.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14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경제신문 발행 및 배포’, ‘경제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박람회’, ‘표준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제작’ 등 경제교육 사업을 주도함.
- 2010년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역경제교육센터, 한국경제교육협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KDI 등이 참가한 제1회 경제교육협의회를 개최함.
 -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교육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경제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
 - 또한 위기관리대책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한 부처 실·국장협의회를 구성(2010년 11월)하여 중앙부처 공동으로 경제교육 추진과제를 점검함.

2. 경제교육 추진체계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운영

1) 경제교육지원법 제정과 주관기관 지정

- 정부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2009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을 통해 경제교육을 지원함(2009년 5월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2)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주요 경제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1>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주요 경제교육 사업내용

항목	사업내용
경제교육 기반 조성	경제교육 종합포털 구축·운영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개발
	경제교육 강사 양성
	교사 원격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주관기관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	경제교육단체 협력 활성화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배포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경제교육 경진대회 개최
	경제교육 박람회 개최
	경제교육 방송
기타 경제교육 사업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대상별 특화교육(취약계층 등)
	교사연수

□ 예산지원 및 사용 현황

<표 2>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원 예산 및 사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교육 예산	1,571	9,040	8,600	8,304	6,367	6,498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예산	1,071	8,040	7,500	7,000	3,512	3,743
- 경제교육 기반 조성	160	631	1,314	1,469	510	-
-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아하경제 발간·배포)	766	7,070	5,335	4,861	2,382	-
- 청소년 경제교육프로그램 운영	138	251	747	560	500	-
-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협력사업	7	88	104	110	120	-

3)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체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운영상 문제 등으로 2014년 5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그동안 협회가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분산시켜 수행하고 있음.

가.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 정부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함.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학생, 교사, 일반 시민, 취약계층 등 지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직접 실시함. 기획재정부는 3년 단위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재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센터 간 교육정보를 공유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대상은 청소년, 교사, 취약계층 등 다양하며 교육 형식도 방문교육, 직무연수, 경제캠프, 경제뮤지컬 공연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인원은 2009년 89,802명에서 2014년 119,929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취약계

층에 대한 경제교육이 가장 크게 늘었음(25,809명 증가).

- 전체 교육인원 중 학생(575,727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취약계층(126,526명)임.

<표 3> 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실적

(단위 : 명)

교육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교육인원	89,802	138,349	116,483	135,170	143,133	119,929	787,991
학생	75,968	109,519	84,328	98,727	98,347	78,875	575,727
교사	855	857	982	1,061	1,499	1,199	7,617
일반인	12,979	27,973	31,173	35,382	43,287	39,855	204,647
(취약계층)	(5,998)	(14,363)	(14,439)	(23,669)	(31,026)	(31,807)	(126,526)

3.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 및 공급 현황

가. 양적 규모

1) 선행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총량 파악

-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주요 경제교육 공급자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함.
- 이를 위해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의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함.

<표 4> 교육 대상자 수

(단위 : 명)

대상자		대상자 구분	대상자수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6~19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기준, 2013년)	249,453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2014년)	295,842
	북한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 입국자 수 누적(2002~2014년)	25,528
	노인	65세 이상 인구(2015년)	6,385,55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2013년)	376,112
	장애인	전국 등록 장애인(2013년)	2,501,112
	재소자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13년)	47,924
여론 주도층	교사	초등교사(2014년)	182,672
		중·고등학교 사회교사(2014년)	33,505
	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국가 및 지방)(2013년)	464,656
	언론인	기자직 종사자(2013년)	27,398

2) 분야별 경제교육 현황

- 2012년 (구)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12년 전국 학교 밖 경제교육기관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실시함.
- 경제교육전문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민간단체의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경제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조사함(상업적 교육기관 제외).
- 조사된 168개 경제교육기관 중 공공기관은 94개(56.0%), 민간기관 및 단체는 74개(44.0%)였으며, 공공기관 중에는 공익단체 44개, 공공기관 20개, 민간기관 및 단체 중에는 민간단체 33개, 금융회사 31개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조사된 전체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총 365개로, 경제 183개(50.1%), 경제·금융 115개(31.5%), 금융 42개(11.5%) 순으로 많이 실시됨.

<표 5> 경제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 %)

구분		기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균 개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공공 기관	정부기관	5	3.0	5	1.4	1.0
	공공기관	20	11.9	72	19.7	3.6
	지방자치기관	7	4.2	7	1.9	1.0
	지방공공기관	18	10.7	76	20.8	4.2
	공익단체	44	26.2	49	13.4	1.1
	소계	94	56.0	209	57.3	2.2
민간 기관 및 단체	금융회사	31	18.5	59	16.2	1.9
	민간단체	33	19.6	66	18.1	2.0
	시민단체	6	3.6	21	5.8	3.5
	언론기관	2	1.2	3	0.8	1.5
	연구기관	2	1.2	7	1.9	3.5
	소계	74	44.0	156	42.7	2.1
합계		168	100.0	365	100.0	2.2

자료 : 한국경제교육협회(2012), 「전국 학교 밖 경제교육기관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 경제교육 인원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402,416명(50.1%), 민간기관 및 단체 400,907명(49.9%)으로 총 803,323명이 경제교육을 이수했음.

<소비자교육>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 저소득층 주부,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24,49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전면개정 이후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이 155,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이후 연 2만여명의 소비자를 교육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노인 55,928명, 저소득층 주부 13,144명, 결혼이민자 17,409명, 어린이·청소년·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취약계층 142,094명 등 총 228,575명이 소비자교육을 받았음.

<표 6> 공정거래위원회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단위 : 회, 명)

교육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노인	336	26,263	206	15,508	82	6,960	87	7,197	711	55,928
저소득층 주부	72	4,453	112	6,201	19	1,091	21	1,399	224	13,144
결혼이민자	300	5,231	155	4,742	150	3,761	140	3,675	745	17,409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기타취약계층	1,113	119,490	23	795	230	9,590	352	12,219	1718	142,094
합계	1,821	155,437	496	27,246	481	21,402	600	24,490	3,398	228,57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창업교육>

-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매년 '청소년 비즈쿨'을 선정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내용으로는 ①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지원 등 비즈쿨 운영, ②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③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직무 등 인프라 구축이 있음.

- 2002년부터 비즈쿨 지정·운영 1,362개교(829천 명), 비즈쿨 캠프 126회(11,693 명), 창업동아리 6,505개(73,160명)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7> 청소년 비즈쿨 예산 및 지원학교 수

구분	2002~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122.3억 원	43.8억 원	50억 원	45억 원	50억 원
비즈쿨운영	803개교 (408천 명)	100개교 (72천 명)	124개교 (100천 명)	135개교 (116천 명)	200개교 (133천 명)
비즈쿨캠프	35회 (4,050명)	17회 (1,550명)	37회 (3,2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창업동아리	3,020개 (26,576명)	802개 (10,568명)	800개 (10,560명)	830개 (11,221명)	1,053개 (14,235명)

자료 : 중소기업청(2015),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표 8> 대학 창업학과·입학정원·전담교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빈도	빈도	증감률(%)	빈도	증감률(%)
창업학과	12개 대학 (13개 학과)	13개 대학 (14개 학과)	8.3	20개 대학 (21개 학과)	53.8
입학정원	772명	871명	12.8	1,317명	51.2
전담교수	101명	113명	11.9	206명	82.3

자료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4), 「대학의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 대학원 과정

- 창업학과는 2014년 14개 대학(16개 대학원)에서 24개 과정(석사과정 16개, 석·박사과정 8개)이 운영중임. 2014년 입학정원은 석사 367명, 박사 77명 이고, 전담교수는 257명임.

○ 창업 강좌

- 2014년 282개 대학에서 2,561개 창업강좌가 운영 중이며, 2013년 대비 약

2.5배 증가함. 수강인원은 2014년 124,288명임.

<표 9> 대학 창업 강좌 운영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빈도	빈도	증감률(%)	빈도	증감률(%)
창업강좌	133개 대학 (965개)	135개 대학 (1,051개)	108.9	282개 대학 (2,561개)	108.9
수강인원	48,139명	48,747명	1.3	124,288명	155.0

자료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2014), 「대학의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가. 대상별 경제교육 현황

1)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아동 · 청소년

- 2013년 12월말 미취학학생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061개소이며, 이용 아동수는 109,066명으로 조사됨.
 - 미취학아동이 3,714명이며, 초등학생이 80,31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KDI는 2014년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캠프를 시범 운영(3개반) 한 후 2015년 동계 방학에도 2개반을 운영함(동 · 하계 방학 중 연 2회 실시 예정).
 - 2014년 8월 하계 방학에는 114명(3개반)이 캠프에 참여하였고, 2015년 2월 동계 방학에는 62명(2개반)이 참여하였음.
 - 참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²⁾,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5.7%에 그쳤고, “학교에서 경제를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배웠는가?”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에 배웠다는 학생이 52.9%로 가장 높았음.

2) 2014년 하계 캠프 참가자 중 초등학생(4·6학년)은 조사에서 제외하였고, 2014년 2기와 2015년 동계 캠프에 참가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지난 2015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251개 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선착순 250명 대상).
 -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동·청소년은 95.6%, 교사는 70.1%로 높게 조사됨.
 -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아동의 75.7%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36.3%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교사들에 대한 경제교육 필요성에는 70.1%가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교육받은 경험은 36.3%에 그쳐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10명 이하일 때 경제교육 기회가 58.3%로 나타났으며 11~20명 규모 82.0%, 21명 이상 79.7%에 비해 경제교육 기회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기관의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2) 다문화가족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³⁾은 2014년 기준 1,569,47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결혼 이민자는 281,295명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는 191,328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22,745명(13.5%) 증가하였고,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이전의 자녀를 둔 가정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경제교육 실태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을 제외하고 경제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센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
 - 방문지도교사의 경우도 월 평균 1회로 나타나 최소한의 의무교육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뤄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의 기본은 언어교육이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거주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경제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주여성들 중 상당수는 고국의 가족을 위해 취업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아 교육에 관심도 적고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주여성이 처한 문제와 교육 참가의 어려움
 - 이주여성의 경우 시댁과 친정의 경제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든 남편과 젊은 아내 사이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교육 자체에 대한 수요 부족
 - 언어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어 교육에도 소극적인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 그러나 자녀들이 취학하게 되면 자녀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3) 북한이탈주민

-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12월 기준 27,5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거주 중임.
 -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약 70%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30대(29.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8.1%), 40대(16.3%)의 순이며, 10대 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12%를 차지함.
- 탈북 초기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제3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경험하기도 함.
 - 그러나 최근 북한을 떠난 지 1개월 내에 한국에 입국하는 '직행탈북'이 증가⁴⁾하

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요소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10>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87	1,503	2,224	1,918	1,161	433	308	8,314
여	590	1,781	5,378	6,105	3,242	983	867	18,946
계	1,177	3,284	7,602	8,023	4,403	1,416	1,175	27,080

* 2014년 8월 입국자 기준

-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 고용률은 53.1%, 실업률은 6.2%에 달함.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월평균 소득이 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 여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 이들의 경제적 적응이 한국사회 적응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생소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
 - 양적인 측면
 - 하나원 교육 중 순수한 경제교육은 6시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
 - 질적인 측면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바탕으로 짐작할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축소판 형태
 - 이러한 환경과 부족한 교육 기회 및 시수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부록)』, 늘봄플러스, 2011, p.358.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또 국민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게 하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점검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이해력을 조사함으로써 현행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교육의 방향을 정립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삶의 모든 부분과 연계된 것으로, 그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 각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이해력을 조사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선정
 - 실시 전례가 전무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이해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시스템을 구축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한국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정부가 통일시대에 맞닥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험적 성격
 -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향후 남북한 통합 및 통일 국면에서 정부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제교육의 시험적 성격

4) 노인

- 1970년 3.1%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7년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35년의 고령가구는 전체 가구의 20.6%에서 40.5%로 증가하고, 독거노인가구도 7.4%에서 15.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2014년)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위인 스위스(24.0%), 3위인 이스라엘(20.6%)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각 지역 경제교육센터, 금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노인대상 경제교육을 시행 중에 있음. 내용은 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또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의 경제교육과 베이비부머 등의 중·장년층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 수입을 고려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5) 공무원

- 안전행정통계연보(20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998,940명임.
 - 행정부 공무원은 총 974,518명으로 전체 공무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615,726명, 지방 공무원은 358,792명임.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총 464,656명임.
 - 입법부 공무원은 3,993명, 사법부 공무원은 17,431명, 기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은 2,998명임.
- 공무원 대상 경제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의 경제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음.

< 중앙공무원교육원 >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2015 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전체 총 277개 과정, 113,071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 집합교육은 100개 과정, 11,771명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177개 과정, 101,300명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지식 Best 16', '시장경

5) 이주미, 김태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20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64~73

제 바로알기' 등의 경제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지방행정연수원 >

-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5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총 204개 과정, 146,644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 집합교육은 총 67과정, 6,644명, 사이버교육은 137과정, 140,000명을 계획하고 있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 관련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으로는 지역경제정책과정, 창조경제과정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으로는 지역경제정책론, 시장경제 바로알기 등이 있음.
 - 경제 관련 집합교육은 각 3일간,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역경제·개발 관련 내용으로 진행

6) 언론인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언론산업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기자직 종사자는 3,156개 매체사에 27,398명이 종사하고 있음.
 - 종이신문은 15,055명(일간 9,865명, 주간 5,190명), 방송은 3,096명, 인터넷신문 8,001명, 통신은 1,246명이 종사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3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속 취재·보도·편집 관련 언론인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학 이상 졸업자중 상경계열(경제 / 경영학) 전공자는 9.8%에 불과함.
 - 소속부서별로 경제와 밀접한 경제 / 산업부의 경우도 상경계열 전공자는 11.2%에 불과
- 언론인 대상 경제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음.
- 언론은 경제 정보의 주요 공급원이자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인은 그 어떤 계층보다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만큼 경제교육의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음.

7) 경제교육 강사

- 기획재정부가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경력과 전공, 연령대 등의 특성을 갖는 강사들이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3년 KDI가 실시한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에 의하면, 이들 중 70%는 별도로 직업을 갖고 있으며⁶⁾, 이들의 직업은 45.7%가 ‘공공 또는 민간기업’ 종사자이고 ‘교수·교사·연구원’이 25.7%로 나타남.
 - 별도의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전의 직업 경력으로는 ‘금융기관 종사’가 20.0%로 높고 ‘교수·교사·연구원’이 13.3%로 분석됨. 그리고 이전 경력이 없다는 응답도 26.7%에 달함.
- 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분류해 보면, 외부 전문가 46.7%, 내부 양성 강사 45.0%로 나타나 외부 강사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의 영역은 경제일반 41.2%, 창업진로 22.3%, 금융·자산관리 14.6%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해 경제교육 사업에 참여시켜 오고 있음.
 - KDI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11개 센터 중 8개에 이르고 있음.
 -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강사인력의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75.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내부 양성강사 외에 상당수가 체계화된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KDI, 2013.12)

- 강사양성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은 양성과정이 자신들의 강의 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59.5%)’, ‘약간 도움이 되었다(40.5%)’ 등 대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여 강사양성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남.
- 표준화된 교재나 커리큘럼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양성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III. 해외 경제교육 현황

1. 미국

< 교육부 >

- 경제교육법안(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은 미국 경제교육 관련 기본 법안으로 주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가 경제교육법안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경제금융이해력 증진을 목표로 발의된 경제교육법안(EEE)을 토대로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교육법안(EEE)은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을 주관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교육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 경제교육협의회(CEE)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871,067달러의 예산을 받아 경제교육법안(EEE)에 근거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⁷⁾.

<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 >

- 금융교육위원회(FLEC)는 공정·정확 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금융교육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함.
 - 2006년 발표된 금융교육전략(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은 저축, 주택 보유, 은퇴 준비, 신용, 소비자 보호, 납세자 권리, 투자자 보호, 금융소외자(The Unbanked), 다문화계층, 청소년금융교육, 금융교육 성과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금융교육 총괄, 국제협력 등 13개 분야로 구성됨.

7)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4).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Final Report

- 2006년 금융교육전략은 금융교육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과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강화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다루고 있음.
- 2011년 발표된 금융교육전략(Promoting Financi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발표된 것으로 ①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증대, ② 핵심 금융역량 결정 및 통합, ③ 금융교육 인프라 개선, ④ 효과적인 금융프로그램 확인·강화·공유 등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함.

<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CEE) >

- CEE는 교사와 경제교육 연구자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 경제·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함.
 - CEE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금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CEE는 미국 내 경제교육 중추기관으로, 각 주 경제교육협의회와 대학 부설 경제교육센터 등 미국 내 200개 이상의 경제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지원금 중 일부는 경제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와 지역교육기관에 지원함.
- 미국은 학교교육을 경제교육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은 주별로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교사가 자발적 표준내용 요소에 따라 경제수업을 하되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2. 영국

- 영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최근 10년 동안 경제·금융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임.
 - 교육부,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등이 교사양성, 교재 및 정보제공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 OECD에서 논의된 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Education)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정부는 2007년 'Financial Capability: the Government's long-term approach'를 발표하고 2008년 독립된 연구(Thoresen Review of Generic Financial Advice)를 통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함.
 - 2010년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여 금융자문기구(MSA)를 창설함.⁸⁾

< 금융자문기구(Money Advice Service, MAS) >

- 금융자문기구(MAS)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금융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됨.

<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

-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거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향상, 소비자보호, 금융범죄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및 결제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재원이 아닌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운영됨. 현재는 금융영업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으로 분리됨.
 - 금융감독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8) G20_OECD_Advancing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p.285-294

Strategy or Financial Capability)의 1단계 사업을 진행함.

-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3. 일본

- 일본 내각부는 2005년 경제교육 아젠다(Agenda of the Economic Education Summit)를 열어 경제금융교육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경제교육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을 '경제교육원년'으로 지정함.
 - 2005년 아젠다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 일본과 미국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 일본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경제교육 관련 정책 입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함.
 - 경제교육의 기본방향을 '경제학의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 습득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경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는 틀로서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금융청(FSA)은 2005년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2007년 CCFSI(Central Council for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 최근 일본 경제금융과 관련된 변화가 학교교육과 사회제도 등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대체로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교육대상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금융청(Financial Service Agency) >

- 정부의 학교제도교육 전담기관인 문부과학성과는 차별화된 교육보급의 주체로서 사회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함.

- 금융청 웹사이트를 「가르쳐줘! 금융청」, 「여러분 일반인」으로 재편하고 경제교육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자원을 확대함.
- 미성년자나 예비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실로 「가르쳐줘! 금융청」을 운영함.
- 금융청은 일본 경제금융교육의 중심기구로서 2013년 금융교육 스터디그룹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경제금융교육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⁹⁾ >

- 일본 소비자청(CAA)은 소비지원행정을 일원화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일 기관으로 2009년 설립되어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정책 수립, 소비자생활을 위한 기반시스템 확립, 소비자 안전 보장, 부정기업 감시, 소비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2012년 제정된 소비자교육촉진법(Act on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에 따라 '소비자교육 증진 기본정책'과 소비자교육증진위원회를 개설함.

9) <http://www.caa.go.jp/en/>

4. 세계 경제교육 흐름

가. 금융교육의 강화(OECD)

- 2006년 G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재무장관 회담에서 '금융교육 및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에 동의함.
-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G20 국가들은 그들의 실정에 맞게 학령기, 노년기, 취약계층 등 대상별 금융교육전략을 제시함.

<표 11> 금융교육전략 진행 상황

진행상황	국가수	국가
금융교육전략 수정 또는 2단계 실행	9	호주,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금융교육전략 초안 실행	19	아르메니아, 브라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베니아, 터키
금융교육전략 초안 작성	26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엘살바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케냐, 레바논, 말라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웨덴,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우루과이, 잠비아

자료 : OECD(2014. 9), 「OECD/INFE Progress Report on Financial Education」

-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OECD 등 세계기구 중심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별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교육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금융문맹은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나.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필요성

-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초기 지원이 필요함.

- 미국 CEE와 영국 PFEG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민간기관이지만 초기 정부지원금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가 경제교육을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관여함.

다. 실용적인 경제교육 내용 구성

- 이론 주입식의 경제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실용적인 경제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해외 사례에서처럼 경제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로서 중시되고 있음.

IV.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추진 방안

1.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필요성

- 경제교육은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일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경제교육이 필요함.
 - 국민은 서로 다른 경제 이해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제 이해력 내용이 달라지므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이 이상적임.
 -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생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소재를 제공할 때 효과가 극대화됨.
 - 학교 경제교육 강화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함.
- 경제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사람들의 경제교육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경제 문제는 매우 역동적이며 변화무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경제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시기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최적기에 경제교육을 전달할 때 교육 대상자의 동기가 극대화되고 경제교육 효과도 커지므로¹⁰⁾ 이른 나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연령대에 시의적절한 경제교육 내용이 전달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처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모기지나 대출에 대해 배우려는 동기가 가장 크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에게 투자 상품의 종류나 특성을 가르치는 경우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0) Lewis Mandell(2006). "Does Just-in-Time Instruction Improve Financial Literacy?" *Credit Union Magazine*, vol. 72 Issue 1, Special section p7A

2.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의 특징

- 생애주기에 따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제 이해력과 태도를 규명하려면 먼저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이 주로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특징을 파악·정리할 필요. 생애주기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층, 장년과 중년층, 노년층의 다섯 계층으로 구분

<표 12> 생애주기별 경제생활과 경제교육

구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중년기	노년기
생애사건	탄생	결혼 자녀 탄생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사망	
학교	학교 입학	학교 졸업	자녀 입학	자녀 졸업	
경제생활	노동 준비	노동 시장 진입	가계 형성	주택 확장	은퇴
주요 경제 활동	학습 시작	학습 지속 노동 준비 직업 탐색	취업 창업 활동 가계 형성 자녀 양육	근로활동, 사업 확장 자녀 교육과 결혼 부모 부양 주택 투자 은퇴 후 대비	상속 준비
의식주 외 필요	영양	영양	창업 자녀 학교	사업 유지·확장 자녀 학교와 결혼 부모 간병과 장례	의료비
비용 조달	부모의 지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저축, 연금, 자녀의 지원
자산과 대출	-	-	자산 축적 시작	자산 유지 및 축적	축적 자산 소진
			사업 대출,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긴급 대출		긴급 대출 역모기지
경제 습관	저축 필요성과 방법	저축 실천 목표 설정과 계획 실천	사업 자금 마련 주택 자금 보험 가입 신용 관리	예비적 자금 비축 자신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사건에 대비한 자금 축적	생활양식 조정 자산 소진 연금 이용 보험 조정
필수 경제 역량	돈의 가치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	계약과 합리적 선택 금융회사 이용법 창업과 직로 선택 생애 설계 필요성 위험과 수익성 관계	재무 목표 설정 저축과 투자 실천 신용 관리와 대출 새 진로 모색과 계발 위험 관리	저축과 투자 실천 사업·주택 확대와 대출 자산 축적 노후 대비 위험 관리	연금 관리 축적 자산 관리 사기 피해 예방 보험 활용 능력
			소비자 보호 제도		

3. 경제교육 적기 활용

-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들에게 경제교육을 실행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교육을 실행하기에 특히 적합한 때가 존재하는데 이때를 ‘경제교육 적기’라 할 수 있음.
- 경제교육 적기에는 평소에 비해 사람들이 경제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습득하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므로 경제교육에 대해 더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지니게 되므로 경제교육 적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 효과가 향상됨.
- 경제교육 적기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새 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 결혼을 앞둔 커플 / 출산을 앞둔 부부 /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 은퇴를 앞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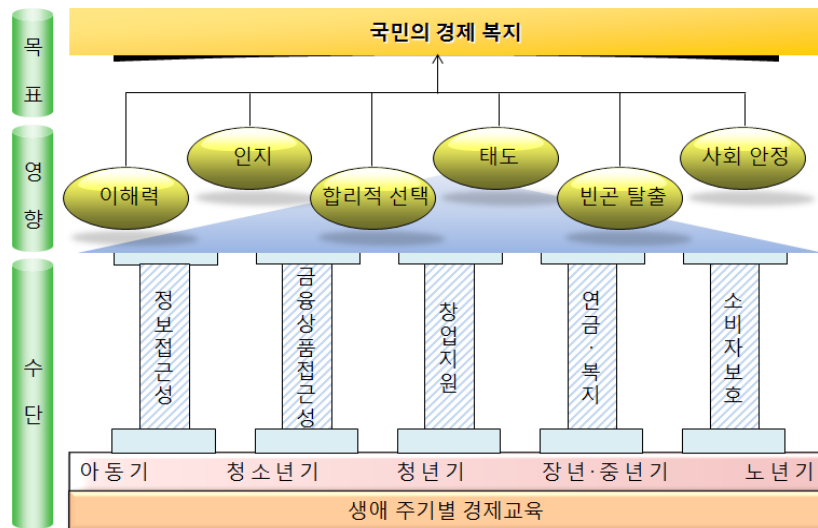
4.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 개발

가.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이란?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내용을 일관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교육의 수월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은 각 연령 계층별로 최소한 지녀야 할 경제 이해력과 태도를 기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 복지 향상에 기여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에 따라 정부가 경제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학교, 공공기관, 경제교육 공급 기관, 금융회사, 학회 등이 역할 분담을 하여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며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경제교육을 균형 있게 실행해야 함.
 - 촘촘한 그물망 같은 경제교육이 실행될 때 국민의 건전하고 질 높은 생활수준 달성이 용이해지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짐.

- 현대 사회에서 기초 경제 이해력과 바람직한 경제 태도는 모든 국민이 습득해야 할 생존을 위한 '삶의 기술'임.

<그림 1>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



나.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의 의의와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은 건수로 볼 때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지 않지만 그 효과나 경제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필수임.
-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금융회사 등 실제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 전략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내용이나 교육 수요자를 놓고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한다면 비효율성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음.
-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사건이 일생에 걸쳐 발생하며 미래의 경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짧은 기간이나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통해 평생 필요한 경제 이해력을 습득할 수 없게 되었음.
-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라 특히 강조해야 하거나 필요한 내용에 특화된 맞춤형 경제교육을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함.

- 경제교육 수요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경제교육 내용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하고 경제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교육 공급 기관들이 교육 수요자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설계하고 해당 교재를 개발 및 공급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음.

5.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이란 생애주기별로 최소한 습득해야 할 내용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 이전 생애주기에서 요구되는 경제교육 핵심 내용은 이후 생애주기에는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나 태도이므로 결국 아래에서 제시하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 내용은 해당 지식이나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나타내며, 해당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계속 요구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 내용에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이해력의 대부분은 청소년기, 즉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까지 습득해야 하므로 학교 경제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표 13>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

생애주기	핵심 내용
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물건은 가치가 있음을 알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습관 ·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건 구입에 신중함을 지니는 태도 · 돈은 소중하며 희소성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음. ·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일과 직업을 통해 돈 또는 소득을 얻으며, 일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함. · 용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용돈 기입장을 기록 · 용돈 모으기를 통한 저축 습관 형성 및 실천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태도 · 주어진 돈으로 최선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 은행의 역할과 주요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 이자의 의미와 이자율(단리)에 대한 이해 · 근로자와 기업의 역할, 납세의 의무를 이해 · 사고나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과 보험의 역할 인식 ·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편익을 옳게 파악하고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연결하는 능력 · 비교우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 선택에 적용하여 대비하는 태도 · 경기 변동에 대한 이해와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 변화가 개인과 가계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 인플레이션, 실업 등 경제 변수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이해하고 가계 수지를 파악 및 분석하는 능력 · 수입과 지출의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소모임의 자금을 관리 · 생애에 걸친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학창 시절을 위한 설계 수립 · 미래의 주요 사건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 설계 훈련으로서 자신의 · 생애 목표 수립과 그에 맞는 자금 관리 계획 수립 · 진로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계획 수립 · 직업이나 일에 의해 소득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고 자신의 미래 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과 기술 준비 · 일의 중요성과 사회에서의 역할 이해 · 계약의 기본을 이해하고 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원천을 파악하고 정보의 질을 분석하여 활용하는 능력 · 금융회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해와 구분 · 복리의 의미와 조기 저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 · 저축, 주식,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과 구조 이해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산 관리를 하는 태도 · 신용카드의 원리를 알고 신용카드 사용이 대출임을 이해 · 금융 상품에서 위험과 수익 사이의 상충 관계 ·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과 구성 방법 · 기업 창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사 경영의 내용을 이해하고 창업 준비 · 경제생활에서 위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험에 따른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 파악 · 사회 보험과 개인 보험의 보완 관계 인식 · 대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상환 방법과 금리 분석 능력. · 채무자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제도 · 경제적 문제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를 이해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
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은 미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투자임을 이해하고 등록금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임을 인식 · 인생 목표를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학업과 훈련에 노력하는 태도 ·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태도와 상품 구입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한 후 목적과 예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 ·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복리에 기초한 장기 계획의 중요성 이해 · 세금과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평가 능력 · 수지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수지 개선을 위해 일을 통한 수입을 늘리는 노력 · 가족의 일원으로 가계 수지를 파악하고 지출 관리를 실천하는 태도 · 수입과 함께 저축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는 습관 · 이윤과 기업가의 역할 이해와 창업을 통한 자기계발 능력. ·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 ·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분석 ·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 인식.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과 교육, 주거, 자녀, 노후에 대비하는 자금 필요성 인식 · 저축 및 투자 상품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72의 법칙을 활용하여 개인 재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 · 가입하고 있는 공적 연금이나 보험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저축, 보험, 연금을 이해하

	<p>고 가입하는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내용과 조건을 이해하고 계약 체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청하는 방법 이해 · 경기, 금리, 환율 변화가 개인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금융 상품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인터넷 금융 거래의 유의점, 보안, 정보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 · 금융 상품의 3가지 특성(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험과 수익성의 상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 · 위험 분산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자산의 분산, 지역의 분산, 시간의 분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산 관리를 실천하는 태도 · 위험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의 보험을 이해하고 자신이 갖추어야 할 보험의 종류와 보험 상품 선택 능력 · 자신의 경력 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 ·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적절한 주택 대출 상품 선택 · 장기 주택 대출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 계획 수립 및 실천
장년 · 중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계 수지의 건전성 유지 · 소득과 지출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를 포함한 장래 계획을 위한 수치 계획 실천 · 자산과 부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 방법 강구 및 실천 · 안정적 노후 생활을 포함한 장래 목표를 위해 적절한 저축 및 투자 실천 · 필요에 따라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 · 가정환경 변화, 미시 및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자신의 자산, 부채, 저축 계획을 재검토, 수정하고 실천하는 태도 · 학교나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자녀의 경제교육을 위한 노력 ·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저축,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장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 생활을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 · 노후에 대비한 다양한 보험 상품 준비 · 정부 경제 정책이 가계, 기업,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자녀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와 은퇴 후 주택 수요를 고려한 주택 관련 자금 계획 수립 및 실천 ·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태도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여생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능력 ·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등의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 정기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태도 · 자산과 부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자금과 상속 등을 계획 및 실천하는 능력 · 연령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장기 운영 대신 유동성이나 안전성을 강조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습관 · 의료비, 경조사비 등 예기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태도 · 정부의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노년층에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상담 후에 선택하는 태도 · 주택을 이용한 역모기지 활용 능력 ·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가나 상담원 확보 ·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태도

6. 정부 주도의 최우선 추진 전략

- 경제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은 일종의 R&D이며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 외국의 사례와 경제교육 추진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경제교육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경제교육 공급자들이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하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육 추진 전략의 단기 및 중기 성과도 평가
-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경제교육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 경제교육 공급기관들이 적극 채택·활용하도록 유도
- 각 경제교육 참여 기관이 교육 경험, 정보,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필요한 연구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 체계 강화

<표 14>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추진 전략

주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중년기	노년기
정부	경제교육 교육과정 개편 타 과목과의 융합 지원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사대와 교대 경제교육 과정 필수화 경제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부모 지원 창구 마련		대학교 경제교육 강화 군대 경제교육 지원	경제교육 학점제 도입 직장 내 경제교육 지원 공무원 대상 경제교육	노인 전용 자문 창구 개설 노인 전용 자문 인력 양성
	경제교육 추진 전략 수립과 실행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과 경제교육 관련 단체 사이의 협력 강화 사용자 친화적 경제교육 포털 구축 연구, 측정, 평가				
경제교육 공급기관	학교 방문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제공		군대 경제교육 제공 다양한 성인 경제교육 제공 채널 구축 직장 내 경제교육 실행		노인학교 경제교육
공동	경제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제공		돈의 오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

V. 경제교육 평가 및 국민여론

1. 우리나라 경제교육 평가

-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위축 및 부실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사회에 진출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애로를 겪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인 약 97%가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72%가 학교 밖 경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경제교육은 정부를 포함한 여러 경제교육 전문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문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음.
- 특히, 학교 밖 경제교육을 공급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조정·운영되지 않아 예산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상태임.
 - 실제로 2004년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과 민간 경제교육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민·관 경제교육실무협의회’가 발족되었으나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로 오래 존속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2009년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운영해 왔으나, 동 협회가 조직 운영상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순기능이 왜곡되거나 경제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교육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약화 현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특히 경제교육과 관련한 정부 예산의 삭감 및 축소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 조사, 경제교육 표준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경제교육 강사인력 양성 등의 기

반 확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으로 새로운 주관기관을 선정해야 하나,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은 주관기관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새로운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학교 밖 경제교육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경제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체계가 없고,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교육 자문그룹이 부재한 것도 우리나라 경제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밖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경제교육 기관들이 선진 외국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목적도 조직의 이해와 연동되어 있어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정부 내에서조차 관심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임.
- 경제교육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조차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예산 삭감 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에 따른 국회의 경제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의 타개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측면에서 중립성, 연속성, 전문성 등이 담보된 경제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중앙 정부가 구심점이 된 경제교육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음.

2. 경제교육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 합리적인 경제활동 영위

- 일반국민의 43.9%가 본인의 경제 여건과 사회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1%('매우 그렇다' 12.8% + '약간 그렇다' 20.3%)였으며,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3.0%('전혀 그렇지 않다' 7.4% + '별로 그렇지 않다' 15.6%)였음.

□ 경제지식 입수 경로

- 일반국민의 44.4%가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경제지식을 입수한다는 응답이 36.7%였음.

□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

- 일반국민의 48.4%가 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초중고 학생' 때라고 강조함. 다음으로 '대학생(25.5%)' 시기 또한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응답함.

□ 현재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학교 경제교육의 도움 여부

- 일반국민의 과반 이상인 51.4%('전혀 그렇지 않다' 24.6% + '별로 그렇지 않다' 26.8%)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경제교육이 현재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현재의 경제활동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27.2%('매우 그렇다' 9.5% + '약간 그렇다' 17.7%)에 그침.

□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

- 일반국민의 96.9%('매우 그렇다' 62.5% + '약간 그렇다' 34.4%)가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전혀 그렇지 않다' 0.7% + '그렇지 않다' 2.4%)로 소수에 그침.

□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

-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N=969)들은 그 이유에 대해 과반 이상이 '경제 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를 지목함.
 -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는 29.8%, '학교 경제교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는 14.2%의 응답률을 보임.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

-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일반국민의 72.0%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0%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과 합리적인 경제생활

- 앞서 질문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았던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보통 이상(3.44)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경제교육 비경험자는 보통수준(3.05)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함. 이는 학교 밖 경제교육이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냄.

□ 경제교육 기관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80)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은행, 신문사, 사회교육원 등의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이 34.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4.3%로 나타남.

□ 경제교육 분야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80)를 대상으로 교육받은 분야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관리(43.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42.5%)', '경제일반(35.7%)', '투자(23.2%)' 순으로 나타남. 한편, '소비자교육(11.4%)'과 '신용(7.5%)'에 대한 교육 경험은 낮았음.

□ 경제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N=720)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3%가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를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인근의 경제교육 기관이 없어서(23.3%)'를 꼽음. 이는 경제교육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의 충분성

- 일반국민의 63.1%가 교육기관, 교육자료 등 현재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 반면, 단지 8.2%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다고 응답

□ 경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주체

- 일반국민(85.0%)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은행 등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4.8%였음.

□ 정부가 대국민 경제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 일반국민은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에 대해 '민간기관의 경제적 지원(38.4%)'과 '강사양성, 교재개발 등 경제교육 기반조성(36.7%)'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면,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실시(24.9%)'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향후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

- 일반국민들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 분야는 '자산관리(28.4%)'와 '경제일반(21.9%)'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세금(12.4%)', '소비자교육(12.0%)', '금융(10.6%)' 등의 순이었음.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지속 필요

- 대상별·분야별, 그리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을 살펴본 결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실적을 내고 있고, 상당한 비중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경제교육의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경제교육 수요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교육 경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이나 중소도시 등에서는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 등 우리나라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되,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민간 경제교육 기관 및 단체를 측면 지원하거나 경제교육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공급이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강화 방안

가.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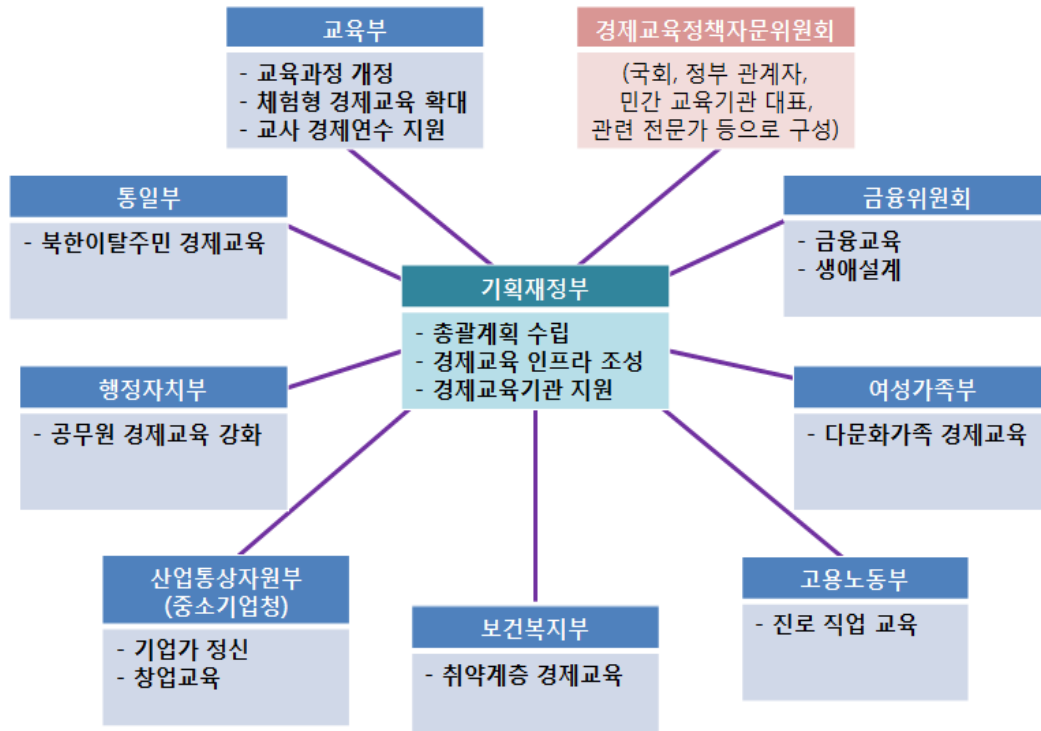
1) 경제교육 추진체계 확립

- 현재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경제교육을 효율 및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추진 중에 있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의 취지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설득하여 경제교육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이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시행령의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차선책을 검토
 - 지정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차선책도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 등 법에 의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경제교육협의체 구성

- 현재 경제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부재한 상황임.
 - 2004~2006년 기간 동안 민·관 경제교육실무협의회가 발족하였으나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활동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주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하되 경제교육 전문기관(한은, KDI 등)을 참여시켜 경제교육협의체(경제교육 관련 부서 실·국장급 참여)를 구성함(총괄 기능은 조직·인력·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담당).

<그림 2> 정부 경제교육 추진체계



3) 경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우리나라 경제교육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하고, 경제교육의 비전 및 추진 전략 제시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교육 자문기구인 '경제교육 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 경제교육 관련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논의
 - 정부의 경제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기관 운영 방침 논의
 - 새로운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자문
 - 국내외 경제교육 관련 조사·연구 지원 및 자문
 - 교육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논의 등임.

<그림 3> 경제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칭) 구성



4) 표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지속 개발

- 현재 동일한 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및 강사에 따라 교재 및 연수프로그램이 다르거나 미흡하여 경제교육의 질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계층별, 분야별, 지역별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영상 등 교육매체도 다양화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정부 및 국회의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5)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 현재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부족한 경제교육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경제교육 분야의 전문강사 정보 수집 및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DB를 구축하여 경제교육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 필요
 -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기타 경제교육기관 등의 전문강사와 경력단절여성

등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계층별, 부문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육 희망 강사 모집

- 금융, 소비, 직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교육 실시
 - 교육 이수자는 강사 DB에 등록하여 경제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경제교육 시 강사로 활용
- 경제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예산 및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되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경제교육 종합포털 구축

- 우리 국민들의 44.4%는 경제지식 입수 경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 도시 혹은 도서지역 거주자 등 경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교육 수요자들에게 원격으로 각종 경제교육 자료에 접근시킬 수 있다면 경제교육 수혜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제교육 종합포털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학생, 교사, 일반인, 민간 교육단체, 지역 센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명실공히 경제교육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경제교육 포털을 통해 원격 연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나.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1) 지역경제교육센터 활성화

- 지역경제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11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전국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부 지역의 경우 관

할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확대·지정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된 프로그램 및 교재를 통한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필요
- 지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교육센터 위상 제고 필요
 - 현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각 지역발전연구원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제교육센터의 위상 제고 필요

2) 수도권 경제교육 문제 해소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는 KDI가 수도권 경제교육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현재는 물리적인 거리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온라인 경제교육 확대

- 온라인 경제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함.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온라인 경제교육을 추진할 경우 물리적, 시간적 제약 해소를 위하여 웹, 모바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다. 민간경제교육 지원 방안

1) 민간 경제교육 단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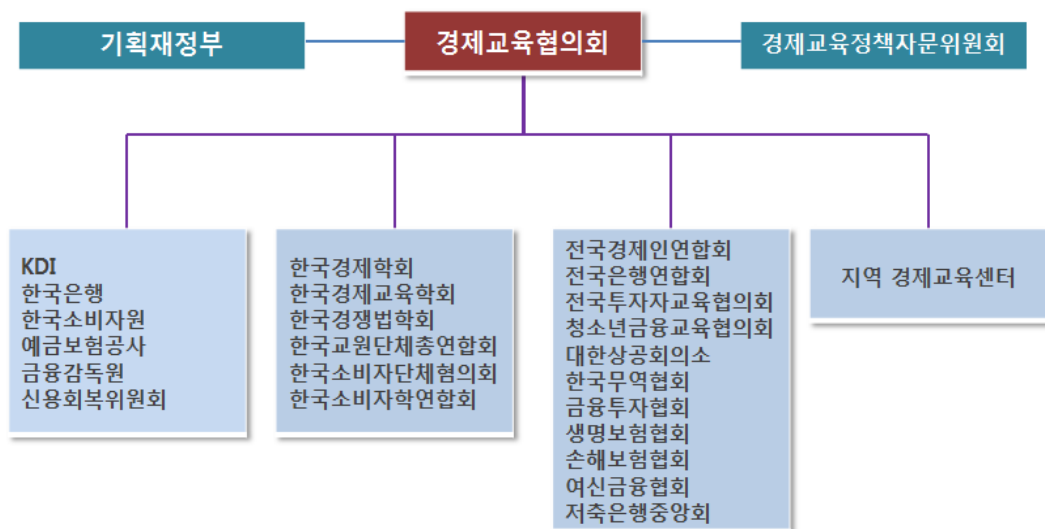
-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를 토대로, 정부가 수행을 해야 하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감히 위임 혹은 위탁시킬 필요
- 해당 분야의 강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강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 수요 파악 등을 토대

로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

2)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협력체계 구성

- 정부와 민간 간의 경제교육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공공 및 민간 경제교육 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경제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전신인 한국경제교육협의회를 벤치마킹하여 체계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경제교육협의회 추진체계



[발표 2]

대학 경제학과 커리큘럼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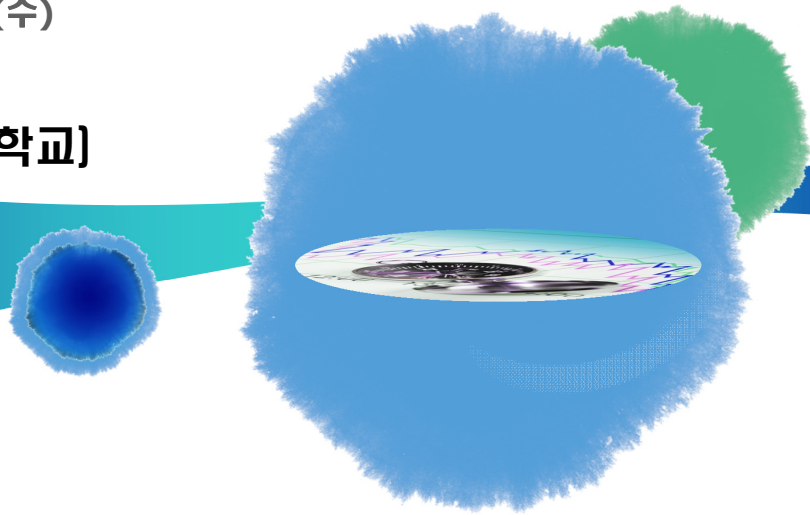
2015. 10. 21

이 영
(한양대 교수)

대학 경제학과 커리큘럼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의 현실

2015. 10. 21 (수)

이영 [한양대학교]



목차

- I. 서론
- II. 주요 대학의 커리큘럼 비교
- III. 경제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I. 서론

- ◆ 경제학은 여러 학문 분야 중 매우 표준화가 많이 된 학문
- ◆ 경제학은
 - ◆ 방법론: 합리성을 가정하고 수학, 통계학, 논리를 활용
 - ◆ 분석 대상
 - 선택: 기업, 가계, 정부, 이익집단
 - 상호작용: 시장, 정치의 장
 - 거시경제적인 현상과 결과
- 이러한 이공계적인 방법론, 상대적으로 명료한 학문 분야로 인해 경제학 커리큘럼은 상당히 표준화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 의 커리큘럼 비교

(1) 한양대학교

- ◆ 총 61개 과목
- ◆ 금융 분야로 특화하여 전체 과목의 1/5 정도가 금융 관련 과목
- ◆ 경제학 중에서 특정 분야로 특화한 형태
- ◆ 1학년에서 수리, 계량, 통계 입문 과목이 존재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학년	학수번호	과목명	이수구분
1학 년	EC01001	경제학입문	기초필수
	GEN5029	커리어개발 1	기초필수
	CUL0005	말과글	기초필수
	SYH0001	휴먼리더십(HELP1)	기초필수
	EC01005	경제통계분석	기초필수
	EC01020	계량경제입문	기초필수
	EC01007	수리경제입문	기초필수
	GEN4091	과학기술의철학적이해	기초필수
	CUL2046	기업정보의이해	전공핵심
	GEN6032	전문학술영어	기초필수
2학 년	EC02030	경제사	전공핵심
	EC02028	거시경제1:국민소득과물가	전공핵심
	EC02059	재무경제1	전공핵심
	EC02029	미시경제1:소비자와기업	전공핵심
	SYH0002	글로벌리더십(HELP2)	기초필수
	EC02032	거시경제2:경기변동과경제성장	전공핵심
	EC03003	화폐금융	전공핵심
	EC02035	게임이론과응용	전공핵심
	EC02062	재무경제2	전공핵심
	EC02033	미시경제2:시장구조와후생	전공핵심
	EC03008	노동경제	전공핵심
	EC03080	증권투자론	전공핵심
	EC04003	국제금융	전공핵심
	EC03068	산업조직과공정거래	전공핵심
	EC03007	계량경제	전공핵심
	EC02031	경제학실사	전공핵심
	EC04049	국제경제관계	전공핵심
	EC03045	공공경제1:조세	전공핵심
	EC03087	법경제이론	전공심화
	GEN6094	전공현장실습1	전공심화
3학 년	EC03086	고급재무이론과실무	전공심화
	EC03076	재무금융IT	전공심화
	EC03090	금융빅데이터분석학	전공심화
	EC03091	응용거시재무	전공심화
	GEN5100	커리어개발 2	기초필수
	EC03080	증권투자론	전공핵심
	EC04003	국제금융	전공핵심
	EC03068	산업조직과공정거래	전공핵심
	EC03007	계량경제	전공핵심
	EC02031	경제학실사	전공핵심
3학 년	EC04049	국제경제관계	전공핵심
	EC03045	공공경제1:조세	전공핵심
	EC03087	법경제이론	전공심화
	GEN6094	전공현장실습1	전공심화
	EC03086	고급재무이론과실무	전공심화
	EC03076	재무금융IT	전공심화
	EC03090	금융빅데이터분석학	전공심화
	EC03091	응용거시재무	전공심화
	GEN5100	커리어개발 2	기초필수
	SYH0003	비즈니스리더십(HELP3)	기초필수
	EC03033	금융시장과금융상품	전공핵심
	EC02061	재무금융시계열예측	전공핵심
	EC03047	국제무역과통상정책	전공핵심
	EC03049	체제이행경제론	전공핵심
	EC03074	선물과옵션	전공핵심
	EC03048	공공경제2:정부지출	전공심화
	EC03021	사회보장	전공심화
	SOC3018	정치경제학	전공심화
	EC03001	수리경제	전공심화
	EC03088	응용미시경제학실증분석	전공심화
4학 년	EC03089	채권론	전공심화
	SYH0004	셀프리더십(HELP4)	기초필수
	EC04061	국제무역거래및실무	전공심화
	EC03073	위험관리	전공심화
	EC04069	관리경제	전공심화
	EC04071	세계경제와한국의비전	전공심화
	EC04073	정보와물학실성의경제학	전공심화
	EC04079	범죄경제학	전공심화
	EC04082	금융퀀트이론	전공심화
	EC04080	고급파생상품론	전공심화
4학 년	EC04063	국제금융시장과국제투자	전공심화
	EC04066	정부와경제발전	전공심화
	EC03040	정보통신경제론	전공심화
	EC04054	세계경제의이해	전공심화
	EC04081	계산금융의기초	전공심화
	EC03080	증권투자론	전공핵심
	EC04003	국제금융	전공핵심
	EC03068	산업조직과공정거래	전공핵심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 비교

(2) 서울대학교

- ◆ 총 55개 과목
- ◆ 비주류 경제학과 국제 경제 관련 과목이 많음
- ◆ 1학년때 경제학 과목이 경제원론 1, 2만 존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1학년	200.105	경제원론 1	200.106	경제원론 2	[*]표 시는 전공 필수 과목
	212.201*	미시경제이론	212.202*	거시경제이론	
	212.203*	경제사	212.204*	경제통계학	
2학년	212.210A	경제철학개론	212.205	근대경제사	
	212.214*	경제수학	212.206	노동경제학	
	212.215	정치경제학입문	212.209	마르크스경제학	
	212.216	시장경제의 이해	212.213	국제경제론	
	212.301	계량경제학	212.302	수리경제학	
	212.305	재정학	212.303	화폐금융론	
	212.307	국제무역론	212.308	국제수지론	
	212.309	국제금융론	212.314	한국경제사	
	212.313	동양경제사	212.316	경제학사	
	212.317	산업조직론	212.318	산업연관론	
	212.326	노사관계론	212.322	현대마르크스경제학	
3학년	212.328	식료와 농업의 경제학	212.335A	생명경제학	
	212.329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12.338A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 품 1: 이론	
	212.331	정보통신경제학	212.342	인구와 경제	
	212.337A	주식, 채권, 파생금융 상품 2: 제도	212.343	조세론	
	212.339	게임이론 및 응용	212.344	조직과 기술경제론	
	212.341	국제경제사	212.346	금융경제세미나	
	212.345	산업경제세미나	212.347	경제성장론	
	212.349	미시금융론	212.348	고급계량경제학	
	212.351	거시경제학특강	212.350	정치경제의 이해	
	212.461	환경경제학	212.412	한국경제론	
	212.466A	경제발전과 전략	212.436	중국경제론	
	212.467A	경제추격론	212.470	경제학연습 2	
4학년	212.468B	계약경제학 1	212.474	경제예측 및 시계열 분석	
	212.469	경제학연습 1	212.475	수리금융경제학	
	212.471	동태적 거시경제이론	212.476	정보경제학	
	212.472	이행기경제와 경제체 제론	212.477	계약경제학 2	
			212.478	금융 중개와 규제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 비교

(3) 연세대학교

- ◆ 총 51개 과목
- ◆ 특이 과목: 금융공학, 주니어세미나
- ◆ 영어 전용 강의가 30% 차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구분	과목명	영어가 능과목	이수구분
EC01101	경제수학 I	0	전공기초
EC01102	경제수학 II	X	전공선택
EC01103	미시경제원론	0	전공기초
EC01104	거시경제원론	0	전공기초
EC02001	주니어세미나	X	
EC02101	거시경제학	0	전공필수
EC02102	미시경제학	0	전공필수
EC02103	경제사개설	X	전공선택
EC02104	경제학실사 개설 I	X	전공선택
EC02109	한국경제사	X	전공선택
EC02113	국민경제론	X	
EC03101	게임이론과 응용	0	전공선택
EC03102	경기변동과 경기예측	X	전공선택
EC03103	경제발전론	0	전공선택
EC03104	계량경제학 I	X	전공선택
EC03105	금융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06	노동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08	수리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09	자원 및 환경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0	재정학	X	전공선택
EC03111	지역경제론	X	전공선택
EC03112	한국경제론	0	전공선택
EC03113	인구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4	후생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5	인적자원관리 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6	경제정책	X	전공선택
EC03118	금융리스크 측정과 관리	X	전공선택
EC03119	금융공학의 이해 I	X	전공선택
EC03120	금융공학의 이해 II	X	전공선택
EC03121	경제학실사 개설 II	X	전공선택
EC03122	금융공학을 위한 수리적 이해	X	전공선택
EC03123	계약 및 조직 이론	X	전공선택
EC03127	법경제학	0	전공선택
EC03128	금융 계량 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29	경제고전강독	X	전공선택
EC03130	국제금융론	0	전공선택

EC03105	금융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06	노동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08	수리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09	자원 및 환경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0	재정학	X	전공선택
EC03111	지역경제론	X	전공선택
EC03112	한국경제론	O	전공선택
EC03113	인구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4	후생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5	인적자원관리 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16	경제정책	X	전공선택
EC03118	금융리스크 측정과 관리	X	전공선택
EC03119	금융공학의 이해 I	X	전공선택
EC03120	금융공학의 이해 II	X	전공선택
EC03121	경제학실사 개설 II	X	전공선택
EC03122	금융공학을 위한 수리적 이해	X	전공선택
EC03123	계약 및 조직 이론	X	전공선택
EC03127	법경제학	O	전공선택
EC03128	금융 계량 경제학	X	전공선택
EC03129	경제고전강독	X	전공선택
EC03130	국제금융론	O	전공선택
EC03131	국제무역론	O	전공선택
EC03132	근대경제사	X	전공선택
EC03133	산업조직론	O	전공선택
EC03134	화폐금융론	O	전공선택
EC04102	경제계획	X	전공선택
EC04103	경제동학	X	전공선택
EC04104	계량경제학 II	X	전공선택
EC04105	맑스경제학	X	전공선택
EC04107	비교경제제도론	O	전공선택
EC04110	공공 및 정치경제	O	전공선택
EC04113	거시경제동학	X	전공선택
EC04114	금융자산투자의 이해	X	전공선택
EC04115	기업금융론	X	전공선택
EC04116	산업발전론	X	전공선택
EC04117	시장경제포럼	X	전공선택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 비교

(4) 고려대학교

- ◆ 총 75개 과목
- ◆ 비주류경제학 관련과목 개설
- ◆ 일본경제, 중국경제 등 동아시아경제 관련 과목 개설
- ◆ 각 세부전공별 세미나 과목이 개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의통계분석
경제원론II; 경제수학; 시장경제의이해; 경제학사I; 비교경제제도로론; 산업조직론;
계량경제학II; 노동시장론; 정치경제학개론; 자원경제학; 국제개발협력의이해
한국의경제발전전략:성공과실패; 계량경제학I; 정보통신경제학;
전략과정보의경제학; 한국경제사; 화폐금융론; 한국현대경제사; 재정학; 조세론;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경제발전론; 노사관계론; 중국경제론; 일본경제론;
사회주의경제학; 재무경제학; 경제정책; 서양경제사; 경제변동성장론;
지역도시경제론; 환경경제학; 해외경제세미나; 신흥공업국론; 경제통합론; 법경제학;
비주류의경제학; 경제학과철학적논점들; 동서양고전의경제학; 사회경제학;
정치와경제; 실증미시경제학; 시사경제I; 시사경제II; 국제금융세미나;
경제실무인턴십I; 한국아시아세계경제의최근쟁점; 후생경제학; 경제학사II;
지방경제론; 한국경제론; 동아시아경제사; 북한경제론
수리경제학; 한국거시경제분석; 화폐금융세미나
산업조직세미나; 노동경제세미나; 계량경제세미나
국제경제세미나; 재정세미나; 한국경제세미나; 사회복지경제학; 고급이론세미나;
국제재무경제학; 사회경제학세미나; 응용미시계량경제학;
Introduction to Macroeconomics; Money and Banking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국내외인턴십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 커리큘럼 비교

(5) 부산대학교

- ◆ 총 58개 과목
- ◆ 동아시아 경제론 및 응용경제 관련 과목 다수
- ◆ 심화전공 21학점 필수 만일 심화전공 이수 않을 시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교직을 이수해야 함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전공기초	EC16359	글로벌경제와 리더쉽(I)(Global Economy and Leadership(I))
	EC16360	글로벌경제와 리더쉽(II)(Global Economy and Leadership(II))
	EC16175	△경제학원론(I)(Principles of Economics(I))
	EC16174	△경제학원론(II)(Principles of Economics(II))
	EC15015	경영학원론(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전공필수	EC16268	회계학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EC15387	경제통계학(Statistics for Economics)
	EC30502	○ 경제수학(Mathematics for Economics)
	EC30503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EC30504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전공선택	EC30510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EC39055	경제사개설(Introduction to Economic History)
	EC30514	사회경제사상사(History of Social Economic Thought)
	EC23783	문화경제학(Economics of Culture)
	EC23784	인터넷과 경제(Internet and Economics)
	EC30526	지역경제론(Regional Economics)
	EC30511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EC23786	비즈니스경제학(Business Economics)
	EC30512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EC30525	정치경제학이론(Theory of Political Economy)
	EC30513	근현대경제사(Modern Economic History)
	EC24209	자원경제학(Economics of Resource)
	EC31897	게임이론(Game Theory)
	EC21443	디지털경제학(Digital Economy)
	EC30531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
	EC30532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EC30529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EC30541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
	EC30522	계량경제학(Econometrics)
	EC30520	경제학설사(History of Economic Theory)
	EC30521	재정학(Public Finance)
	EC31898	전략경제학(Economics of Strategy)
	EC30544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EC30535	개방경제론(Theory of Open Economy)
	EC30534	한국경제사(Korean Economic History)
	EC30527	경제정책(Economic Policy)
	EC30536	경제발전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전공선택

EC30510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EC39055	경제사개설(Introduction to Economic History)
EC30514	사회경제사상사(History of Social Economic Thought)
EC23783	문화경제학(Economics of Culture)
EC23784	인터넷과 경제(Internet and Economics)
EC30526	지역경제론(Regional Economics)
EC30511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EC23786	비즈니스경제학(Business Economics)
EC30512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EC30525	정치경제학이론(Theory of Political Economy)
EC30513	근현대경제사(Modern Economic History)
EC24209	자원경제학(Economics of Resource)
EC31897	게임이론(Game Theory)
EC21443	디지털경제학(Digital Economy)
EC30531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
EC30532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EC30529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EC30541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
EC30522	계량경제학(Econometrics)
EC30520	경제학설사(History of Economic Theory)
EC30521	재정학(Public Finance)
EC31898	전략경제학(Economics of Strategy)
EC30544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EC30535	개방경제론(Theory of Open Economy)
EC30534	한국경제사(Korean Economic History)
EC30527	경제정책(Economic Policy)
EC30536	경제발전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EC30543	근대경제학설사(History of Modern Economic Theories)
EC30551	기술경제학(Technology Economics)
EC21442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EC29105	한국경제론(Korean Economics)
EC30549	경제변동론(Theory of Business Cycle)
EC31747	고용 · 인적자원경제학(Economics of Human Resources and Employment)
EC30550	경제학특강(Readings in Economics)
EC23788	동아시아경제론(Economics of East Asia)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 비교

(6) 미시간대학교

- ◆ 총 42개 과목
- ◆ 표준화된 교과목
- ◆ 경제학원론 1, 2 이후 4학년에 가서 중급 미시와 거시가 존재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ECON 101 - Principles of Economics I](#)
[ECON 102 - Principles of Economics II](#)
[ECON 108 - Introductory Microeconomics Workshop](#)
[ECON 251 -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Econometrics II](#)
[ECON 299 - Undergraduate Internship](#)
[ECON 310 - Money and Banking](#)
[ECON 320 - Survey of Labor Economics](#)
[ECON 323 - Economics and Gender](#)
[ECON 330 - American Industries](#)
[ECON 325 - Economics of Education](#)
[ECON 340 - International Economics](#)
[ECON 330 - American Industries](#)
[ECON 401 - Intermediate Microeconomic Theory](#)
[ECON 402 - Intermediate Macroeconomic Theory](#)
[ECON 409 - Game Theory](#)
[ECON 411 - Monetary and Financial Theory](#)
[ECON 412 - Topics in Macroeconomics](#)
[ECON 414 - Growth Theory](#)
[ECON 422 -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s](#)
[ECON 429 - Migration Economics and Policy](#)
[ECON 431 -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ECON 432 - Government Regulation of Industry](#)
[ECON 330 - American Industries](#)
[ECON 441 - International Trade Theory](#)
[ECON 442 - International Finance](#)
[ECON 444 - The European Economy](#)
[ECON 451 - Intermediate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Econometrics I](#)
[ECON 452 - Intermediate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Econometrics II](#)
[ECON 453 - Advanced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Econometrics I](#)
[ECON 461 -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I](#)
[ECON 462 -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II](#)
[ECON 481 - Government Expenditures](#)
[ECON 485 - Law and Economics](#)
[ECON 490 - Topics in Microeconomics](#)
[ECON 490 - Topics in Microeconomics](#)
[ECON 490 - Topics in Microeconomics](#)
[ECON 491 - The History of the American Economy](#)
[ECON 495 - Seminar in Economics](#)
[ECON 495 - Seminar in Economics](#)
[ECON 496 -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CON 498 - Honors Independent Research](#)
[ECON 499 - Independent Research](#)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 비교

(7) 하버드대학

- ◆ 총 46개 과목
- ◆ 세부화된 전공명도 상당수 보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	ECON 1000 - Growth, Technology, Inequality, and Evolution
•	ECON 1010A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	ECON 1010A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	ECON 1010B - Intermediate Macroeconomics
•	ECON 1011A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dvanced
•	ECON 1011A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dvanced
•	ECON 1011A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dvanced
•	ECON 1011B - Intermediate Macroeconomics: Advanced
•	ECON 1017 - A Libertarian Perspective on Economic and Social Policy
•	ECON 1018 - Cultural Economics
•	ECON 1030 - Psychology and Economics
•	ECON 1034 - Networks
•	ECON 1050 - Strategy, Conflict, and Cooperation
•	ECON 1053 - Understanding Altruism
•	ECON 1080 - Great Theorems of Microeconomic Theory
•	ECON 10A - Principles of Economics
•	ECON 10B - Principles of Economics
•	ECON 1123 -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	ECON 1123 -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	ECON 1126 - Quantitative Methods in Economics
•	ECON 1160 - Data Science and Behavioral Economics: Application to Systems Medicine
•	ECON 1310 - The Economy of China
•	ECON 1342 -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	ECON 1389 - Economics of Global Health
•	ECON 1400 - The Future of Globalization: Issues, Actors, and Decisions
•	ECON 1410 - Public Economics: Designing Government Policy
•	ECON 1415 - Analytic Frameworks for Policy
•	ECON 1420 - American Economic Policy
•	ECON 1425 - Political Economics
•	ECON 1430 - Economic Growth, Rare Macro Disasters, and Fiscal Policy
•	ECON 1432 -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s
•	ECON 1460 - Economics of Health Care Policy
•	ECON 1490 - Growth and Crisis in the World Economy
•	ECON 1535 -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ECON 1545 - International Financial and Macroeconomic Policy
•	ECON 1620 - Industry Structure, Strategy, and Public Policy
•	ECON 1640 -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	ECON 1661 - Fundamentals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	ECON 1687 - Advanced Economics of the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	ECON 1723 - Capital Markets
•	ECON 1745 - Corporate Finance
•	ECON 1759 -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Central Bank
•	ECON 1760 - Behavioral Finance
•	ECON 1776 -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II. 주요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 비교

(8) 싱가포르국립대학

- ◆ 총 72개 과목
- ◆ Level 5000 (학부 고급과정) 을 운영
- ◆ Special Term 모듈 운영
- ◆ ASEAN Economics, Japan and Korea
- ◆ 미시, 거시, 계량 III 까지 있음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CODES	MODULE TITLES
GEH1002 / GEK1018	Economic Issues in the Developing World
GES1002 / SSA2220	Global Economic Dimensions of Singapore
GEMXXX	Thinking like an Economist
FMA1202D	Taking Risks: Economics, Psychology, and Biology
EC1101E	Introduction to Economic Analysis
EC1301	Principles of Economics

CODES	MODULE TITLES
EC2101	Microeconomic Analysis I
EC2102	Macroeconomic Analysis I
EC2104	Quantitative Methods for Economic Analysis
EC2303	Foundations for Econometrics
EC2374	Economy of Modern China I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CODES	MODULE TITLES
EC3101	Microeconomic Analysis II
EC3102	Macroeconomic Analysis II
EC3303	Econometrics I
EC3304	Econometrics II
EC3312	Game Theory & Applications to Economics
EC3314	Mathematical Economics
EC3322	Industrial Organisation I
EC3332	Money and Banking I
EC3333	Financial Economics I
EC3342	International Trade
EC3343	International Finance
EC3351	Public Finance
EC3353	Health Economics I
EC3361	Labour Economics I
EC3371	Development Economics I
EC3373	ASEAN Economies
EC3375	Economy and Business of Japan and Korea
EC3376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EC3377	Global Economic History
EC3378	Emerging India in Asia's Economic Integration
EC3381	Urban Economics
EC3383	Environmental Economics
EC3394	Economics and Psychology
EC3395	Economics and Ethics
EC3396	Economic Analysis of Law I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

CODES	MODULE TITLES
EC4103	Singapore Economy: Practice and Policy
EC4301	Microeconomic Analysis III
EC4302	Macroeconomic Analysis III
EC4303	Econometrics III
EC4304	Economic and Financial Forecasting
EC4305	Applied Econometrics
EC4306	Selected Readings in Microeconomics
	- Semester 1
	Applied Microeconomic Analysis
EC4307	- Semester 2
	Issues in Macroeconomics
EC4313	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EC4324	Economics of Competition Policy
EC4331	Monetary Economics and Policy
EC4332	Money and Banking II
EC4333	Financial Economics II
EC4334	Financial Market Microstructure
EC4341	International Economics II
EC4351	Public Economics
EC4361	Labour Economics II
EC4362	Immigration Economic
EC4363	Applied Population Economics
EC4371	Development Economics II
EC4372	Technology and Innovation
EC4387	Housing Economics
EC4394	Behavioural Economics
EC4396	Economic Analysis of Law II
EC4398	Economics of Inequality
EC4401	Honours Thesis
EC4660	Independent Study
EC4880	Topics in Economics:
	Special Topics in Economic Growth and Macroeconomics

Ⅲ. 대학 경제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 ◆ 교수중심이 아닌 학생, 사회수요 중심의 커리큘러 작성.
교과과정편성위원회에 산업계 대표를 포함.
- ◆ 새로운 분야를 적극 수용. 재무, 중국경제
- ◆ 수리, 계량 등 방법론 교육 강화
- ◆ 인턴과목 활성화
- ◆ UP 과목 활성화

[발표 3]

경제: 어떻게 가르칠까?

2015. 10. 21

손 정 식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경제: 어떻게 가르칠까?

손 정 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jsonny@hanyang.ac.kr>

1. Junior 경제학 교수의 반성

Junior 경제학 교수의 강의 방식:

경제학 용어와 이론의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강의
정답을 주입하는 강의

불쌍한 학생들의 암묵적 반응(짐작해 보면):

용어와 이론을 배우는 의의(중요성)를 알 수 없다.
경제 용어와 이론을 자신과 연결 짓지 못한다(irrelevant).
흥미롭지도 않고, 쓸모도 알 수 없다.
유용성을 알 수 없으니 더 배우고 싶지도 않다.

Junior 교수의 강의방식과 학생들의 학습자세:

교수는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은 시험점수 잘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충실히 받아 적고 열심히 암기.

정답 주입식 강의의 문제: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치중

그런데 정답 찾기 훈련으로 무장하고 사회에 나오면

'세상에 정답은 없다'면서 남과 다른 해답(different solutions) 요구.

사회는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

비판적 사고 가능한 창의적 인재 요구.

Junior 교수의 학생 인식에 대한 반성:

학생들 머리는 커다란 빈 배
많이만 가르치면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차고
지혜로운 인재가 될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학생 머리는 주둥이가 긴 빈 병과 같다.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다.

Junior 교수의 깨달음:

많이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많이 배우도록 하자.

2. 어떻게 가르칠까?

쓸모도 모르고, 시험 후에는 잊어버릴 지식을 암기하도록 강요하지 말자.
배우는 즐거움을 주어 더 배우고 싶도록 가르치자.

Steve Jobs의 통찰력: "Stay Hungry. Stay Foolish."
배움을 갈구하라.
우직하게 공부하라.

지식은 도구(tools):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데 필요한 도구

무엇을 더 잘 가르쳐야 할까?:

'망치' vs '망치 사용법'

사용법(용도)이 지혜(wisdom)

배움(learning)은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경제 용어나 이론의 용도를 알면, 자신이 접하는 현실 세상과 연결 짓고,
더 많은 용도(응용 능력)를 생각해 낼 것이다.

3. 흥미 있고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모델(제안)

경제 용어나 이론의 개념

+

용어나 이론의 의미, 함의, 교훈, 현실경제 이슈에 대한 시각을 가르치자.

지혜와 통찰력,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흥미 있고 재미있는 수업

4. Senior 교수의 매몰비용(sunk cost) 강의 예

매몰비용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는 수업

음악회 20만원 S석 표 구입한 사람

음악을 들어보니 재미가 없을 때 중간에 나올까? 끝까지 들을까?

매몰비용 개념

+

매몰비용 개념을 현실에 응용하는 사례 수업:

결혼 전 데이트 비용 반환 소송(KBS TV 2014. 1, 21)

판사의 판결: 되돌려줄 필요 없다.

데이트 비용은 헤어지면 끝이다(매몰비용)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수업

매몰비용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매몰비용은 얹질러진 물과 같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은 잊어라.

현실경제 응용사례 수업

매몰비용을 잊지 못해 판단을 그르치는 현실 사례

토론 수업

백화점에서 1만원에 팔던 생선(원가 8천원)을
한물 간 마감시간에 80% 할인가격으로 판매해야 할까? 말까?

정부가 생선 가격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면
팔리지 않은 생선은 어떻게 될까?

교실토론: 시간적 공간적 한계
학생수가 많은 반에서는 모두에게 토론 기회를 주기 어렵다.

교실토론의 좋은 대안: 온라인 강의실 토론

매몰비용 관련 현실경제 이슈에 관한 온라인 토론
가격 할인율을 최대 15%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토론
(참고: 책이 발행되고 나면 발행비용은 매몰비용)

(참고: 정가에 팔리지 않는 책들을 정가의 15%할인 가격이든 85% 할인한 가격이든 팔 수 있어야 발행업자는 손실 최소화)

학생들의 질문을 장려하는 수업

개념 중심 강의는 질문 여지가 별로 없다.
시각(관점)에 관한 강의를 해야 질문할 여지가 있다.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
교수의 시각에 도전적으로 질문(critical thinking)하게 하라.
교실토론의 좋은 대안은 온라인 강의실 토론

온라인 강의실에 'Q&A' 방 개설.

질문 독려 방법: 질문 올리면 수업참여 점수 부여.
질문이 너무 많을까 걱정?
교수가 답해주는 수고를 더는 노하우: 수강생들에게 답하게 하라.
올린 답에 대한 수정, 보완 답변, 추가 질문을 환영하라.
강의내용 관련 현실경제 이슈에 관한 학생의 토론 제안 장려하라.
Q&A 방 참여 학생 모두에게 수업참여 점수 부여.

5. 결론: 경제를 어떻게 가르칠까?

사례(가능하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실용 지식을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가르치자.

현실경제 응용 수업, 질문 수업, 토론 수업

지혜를 터득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Team Project 과제물 수업(협업+소통 능력)

독백(monologue)하기보다는 쌍방향(interactive) 수업.

많이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많이 배우도록 가르치자.

<끝>

